

『格致藁·儒略』에 관한 考察

이준희·이수경·이의주·고병희·송일병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A Study on 『Gyukchigo(格致藁)·Yuryak(儒略)』

Lee Jun-Hee, Lee Soo-Kyung, Lee Eui-Ju, Koh Byung-Hee, Song Il-Byu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

1. Objectives

This study is purposed to find Lee Je-Ma's thoughts and intention proposed in the 『Gyukchigo(格致藁)·Yuryak(儒略)』.

2. Methods

It was researched through comparative and overall study on 『Gyukchigo(格致藁)·Yuryak(儒略)』.

3. Results and Conclusions

- (1) On the assumption of Affairs·Mind·Body·Objects(事心身物) as the principle of existence and correlation, there are basic dualistic structure such as Il(一) (individual level) and Man(萬) (universal level) for explanation of 『Gyukchigo(格致藁)·Yuryak(儒略)』.
- (2) Human who easily have individual inclination of mind(private·dissoluteness·idleness·desire) and wickedness(stinginess·extravagance·idleness·fraud) are the being making individual ethics of behavior by earnestness·intelligence·capability·diligence(誠慧能勤) and universal ethics by Wisdom·Propriety·Justice·Humanity(智禮義仁) through devotion·right·practice·concentration of mind·heart·body·power.
- (3) Human in the world having individual immanent psychological four element(意慮膽志) and universal expressional four element(聽視言貌) are under a bias toward wickedness because of inclination of mind. So extending of individual ethics of behavior and completion of universal ethics are essential and indispensable.
- (4) The final aim of human being in the universe is bringing universal ethics of behavior(Wisdom·Propriety·Justice·Humanity(智禮義仁)) to perfection.
- (5) Devotion·right·practice·concentration(誠正修) of mind·heart·body·power(意心身力) are developmental notions of earnestness·intelligence·capability·diligence(誠慧能勤), essential individual ethics for living in the world, and preceding element for moral edification, social behavior and administration of the state.

Key Words : Gyukchigo(格致藁), Yuryak(儒略), Wisdom·Propriety·Justice·Humanity(智禮義仁)

I. 緒 論

『格致藁·儒略』은 東武公의 나이 44세에서 54세까지 10년에 걸쳐서 저술한 그의 力作으로 12篇

으로 구성되어 있다¹⁾. 여러 연구 가운데 『格致藁·儒略』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서술한 연구로는 趙의 연구^{1,2)}와 朴³⁾과 池⁴⁾의 譯解書 등이 있다.

『儒略』에 대해 趙는 평하기를 '儒學의 理論을 東武의 事心身物의 哲學的 思考로 재정립한 것이

• 접수일 2005년 6월 24일; 승인일 2005년 8월 11일

• 교신저자 : 송일병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 +82-2-958-9233 Fax : +82-2-958-9234

E-mail : ibsong@khmc.or.kr

1) 「四戒」이전의 글들은 1880년 이후에 지은 것인데 1889년에 다시 고쳤으며, 「天勢」이하부터는 1889년 12월부터 1890년 11월까지 淸州城 안에서 문을 잠그고 혼자만 앉아서 지은 것이라 했다.

라 하였고²⁾,朴은 ‘전통적인 儒學 사상을 李濟馬의 四象(事心身物)의 인식론에 바탕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제목의 의미는 儒學 사상을 요약해서 기술하였다는 의미로써 Outline of Confucian Thoughts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며³⁾,池는 ‘儒學의 세계관과 가치관, 인성관 등을 폭넓게 서술한 概說’이라 하였다⁴⁾. 즉 『格致藁·儒略』은 기존 儒學을 事心身物의 관점으로 요약 재정립한 글이라 할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格致藁·儒略』을 전체적으로 요약하여, 東武公의 전체적인 論旨가 무엇인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단 『儒略』에서 언급되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字意는 생략하고, 개념과의 상관관계 및 여러 篇사이의 상관관계를 고찰함으로써 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格致藁·儒略』의 論理構造를 고찰하였고, 이에 기본하여 『儒略』全篇을 ‘人間과 天下’로 나누어 요약 고찰하였다⁶⁾.

II. 本 論

1. 『格致藁·儒略』의 論理構造

『儒略』의 기본 논리는 첫째, 事心身物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로써 事心身物 각각의 存在原理 뿐만 아니라 事心身物 상호간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둘째, 이 事心身物의 기본구조를 ‘一’이라는 개별적인 개념과 ‘萬’이라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원화하여 설정하고 있다. 이는 ‘我’와 ‘非我’, ‘己’와 ‘物’의 관계, 더 나아가 ‘個別者’와 ‘普遍者’의 개념⁷⁾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一’이라는 개별적 차

Table 1. 事心身物

	事	心	身	物
一	決 誠	覺 慧	行 能	止 勤
萬	散 智	聚 禮	群 義	居 仁
	大 治平	小 格致	近 誠正	遠 修齊
	貌言視聽	辨思問學	屈放收伸	志瞻慮意
	萬	一	一	萬

원에서의 기본적인 행동 형태로 ‘決覺行止’를, 그 행동의 기본 윤리로 ‘誠慧能勤’을 설정하였고⁸⁾, ‘萬’이라는 보편적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행동 형태로 ‘散取群居’를, 그 행동의 기본 윤리로 ‘智禮義仁’을 설정하였다⁹⁾.

한편, 다른 차원에서 事心身物 중에서 心身을 ‘一’이라는 개별적 개념으로, ‘事物’을 ‘萬’이라는 보편적 개념으로 설정하였고, 事心을 大小로, 身物을 近遠이라 표현하며¹⁰⁾ 개별적 개념과 보편적 개념의 상관관계 및 事와 心, 身과 物의 상관관계를 설정하였다¹¹⁾¹²⁾. 나아가 心身차원의 ‘格致誠正’과 事物차원의 ‘治平修齊’로 『大學』의 八條目을 요약하였다¹³⁾(Table 1).

이상을 요약하면 心身과 事物 개념 속에는 각각 ‘一’의 개별적 차원과 ‘萬’의 보편적 차원의 二元的 구조가 있다. 즉, 心身에는 개별적 개념의 것과 보편적 개념의 것이 있고, 이에 순응하여 事物에도 개별적 개념의 것과 보편적 개념의 것이 있다(단, 心身이 중심이 된다). 더 나아가 人間과 天下 각각

2) 조황성, 고병희, 송일병. 李濟馬의 格致藁中 儒略에 관한 考察. 사상학회지. 1991;3(1):35.
3) 이제마 지음. 박대식 옮김. 格致藁解題 정계출판사, 서울, 2000:10.
4) 李濟馬 原著. 池圭鎔 譯解. 東武格致藁譯解. 영림사, 서울, 2001:470.
5) 본 논고에서는 我 및 人間과 대비되는 요소의 총칭을 ‘天下’라 표현하였다.
6) 본 논고에서의 조문번호는 池의 『東武格致藁譯解』를 따랐다.
7) 헤겔의 ‘개별자’, ‘보편자’, ‘특수자’에서 그 용어를 차용하였다. (한국헤겔학회지음. 헤겔연구5. 청아출판사, 서울, 1994.)

8) 『格致藁·儒略 事物』 1-2 一物止也 一身行也 一心覺也 一事決也
『格致藁·儒略 事物』 1-3 勤以止也 能以行也 慧以覺也 誠以決也
9) 『格致藁·儒略 事物』 1-4 萬物居也 萬身群也 萬心聚也 萬事散也
『格致藁·儒略 事物』 1-5 仁以居也 義以群也 禮以聚也 智以散也
10) 『格致藁·儒略 事物』 1-6 物萬也 身一也 心一也 事萬也
『格致藁·儒略 事物』 1-7 萬事大也 一心小也 一身近也 萬物遠也
11) 『格致藁·儒略 觀仁』 2-3 外乎萬物 苟一物之不辨 竝一身之不寧 苟一事之不達 竝一心之不安
12) 『格致藁·儒略 事物』 1-10 心應事也 博而周也 事湊心也 察而恭也 身行物也 立而敬也 物隨身也 載而效也
13) 『格致藁·儒略 事物』 1-8 治平大也 格致小也 誠正近也 修齊遠也

에도 개별적·보편적 개념의 것이 있다. 또한 事心 身物 각각에는 하위 개념의 四四端이 설정된다¹⁴⁾. 이상을 東武公은 이후 논술의 이론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2. 人間

1) 心身

① 心四端 學問思辨과 私放逸慾 (一心之慾)

心四端인 學問思辨은 博審慎明(一心之用)하여야 하며, 味學·窒問·罔思·闇辨하여서는 안 되는데, 만일 學問思辨이 잘 발현되지 못하면(味學, 窒問, 罔思, 闇辨) 私放逸慾의 一心之慾이 발생하고, 이 一心之慾은 다시 學問思辨을 어둡게 하고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¹⁵⁾. 또한 私放逸慾으로부터 齷侈懶詐의 不善과 誠慧能勤의 善이 나오게 된다고 하였다¹⁶⁾.

私放逸慾으로 생기는 事心身物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私心으로 인해서는 보편적인 事보다는 개별적인 자기중심적 事의 세계에 가치를 두게 되는 구심적인 속성을 갖게 되며, 慾心으로 인하여는 자기중심적 物보다는 보편적인 物의 세계에 탐닉하는 원심적인 속성을 갖게 된다. 放心으로 인하여는 마음만을 快足하게 하는 ‘放於心’의 단계로, 逸心으로 인하여는 몸만을 편하게 하려는 ‘便於身’의 단계로 빠지게 된다¹⁷⁾. 한편 物私·身放·心逸·事慾은 非不善하지만 事私·心放·身逸·物慾은 不善한 것이라 하였다¹⁸⁾.

『天下索我』에서는 인간이 天下에서 살아가면서 수반하는 모든 활동을 往出入來로 표현하였고, 이

가운데에 항상 私放佚慾의 心慾이 생겨난다고 하였으며¹⁹⁾ 필연적 결과로 駭陋妄羞하게 된다고 하였다²⁰⁾. 여기서 往出入來는 我行이고, 駭陋妄羞는 人知니, ‘我實行之 人實知之 可以爲善 不可爲惡’이라 하여²¹⁾ 天下의 모든 문제는 我로부터 기인하고 我的 수행과 心慾의 절제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天下索我』에서는 인간이 天下에 처하여 살아가면서 守獨(내재적/개별적)하거나 接物(외향적/보편적)하게 되는 데, 學問思辨을 철저히 하여, 獨思無邪하고 物問有正하여 慎獨·格物하게 되고²²⁾, 惡僞·好誠하고 惡惡·好善하며²³⁾, 더 나아가 接物克僞하고 守獨得誠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²⁴⁾. 즉 天下에 살아가며 我的 學問思辨을 통해 私放佚慾의 心慾을 억제하고, 慎獨·格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Table 2).

② 誠慧能勤 (一身之用 / 개별적 행동윤리)과 誠正修一

誠慧能勤은 개별적 차원의 행동윤리이자 一身之用²⁵⁾으로 天下에 處하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덕목으로, 一心之用인 學問思辨의 博審慎明을 통하여 얻어진다. 이는 또한 『大學』의 八條目과 ‘治平之誠 格致之慧 誠正之能 修齊之勤’으로 연계되며²⁶⁾, 事物과의 관계 속에서 보편적

14) 『格致彙·儒略 事物』1-9 貌言視聽 事四端也 辨思問學 心四端也 屈放收伸 身四端也 志瞻慮意 物四端也

15) 『格致彙·儒略 事物』2-3 私心味也 慾心闇也 放心窒也 逸心罔也

『格致彙·儒略 事物』2-4 味心味學也 闇心闇辨也 窒心窒問也 罔心罔思也

16) 『格致彙·儒略 事物』4-2 不獨奮之不善出於私也 雖誠之善亦出於私也 不獨詐之不善出於慾也 雖勤之善亦出於慾也 不獨侈之不善出於放也 雖能之善亦出於放也 不獨懶之不善出於逸也 雖慧之善亦出於逸也

17) 『格致彙·儒略 事物』2-5 私心而味學者 視天下事忽而視自己事重也 慾心而闇辨者 視天下物貪而視自己物屑也 放心而窒問者 思一身無慮而橫行則快於心也 逸心而罔思者 思一心無爲而自棄則便於身也

18) 『格致彙·儒略 事物』4-3 物私非不善也 事私斯不善也 事慾非不善也 物慾斯不善也 身放非不善也 心放斯不善也 心逸非不善也 身逸斯不善也

19) 『格致彙·儒略 天下索我』3-1 往則易私 來則易慾 出則易放 入則易佚

20) 『格致彙·儒略 天下索我』3-2 私必有駭 慾必有陋 放必有妄 佚必有羞

21) 『格致彙·儒略 天下索我』3-5 莫見乎隱 莫顯乎微 我實行之 人實知之 可以爲善 不可爲惡

22) 『格致彙·儒略 天下索我』3-9 何謂慎獨 獨思無邪也 何謂格物 物問有正也 爲人也惡惡 慎獨者多 爲人也好善 格物者多 果能惡惡 自然善思 果能好善 自然善問

23) 『格致彙·儒略 天下索我』3-7 好誠圖誠 治人得和 惡僞避僞 修己得清 好誠惡僞 和而又清 惡僞好誠 清而又和

24) 『格致彙·儒略 天下索我』3-10 伯夷之所惡者僞也 僞者天下之至煩也 不可以惡而必克 柳下惠之所好者誠也 誠者天下之至精也 不可以好而必得

2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 第四統』4-7 志瞻心意 利勇謀知也 利勇謀知 物之用也 屈放收伸 勤能慧誠也 勤能慧誠 身之用也 辨思問學 明慎審博也 明慎審博 心之用也 貌言視聽 肅艾哲謀也 肅艾哲謀 事之用也

誠慧能勤은 개별적 존재의 실천적 요소이며, 행동윤리가 되는 것으로 一身之用이라 칭하였다.

26) 『格致彙·儒略 事物』5-2 以其治國平天下之誠 爲學所得之也 故其私己得之齷 莫之蔽也 以其修身齊家之勤

Table 2. 慎獨 格物과 學問思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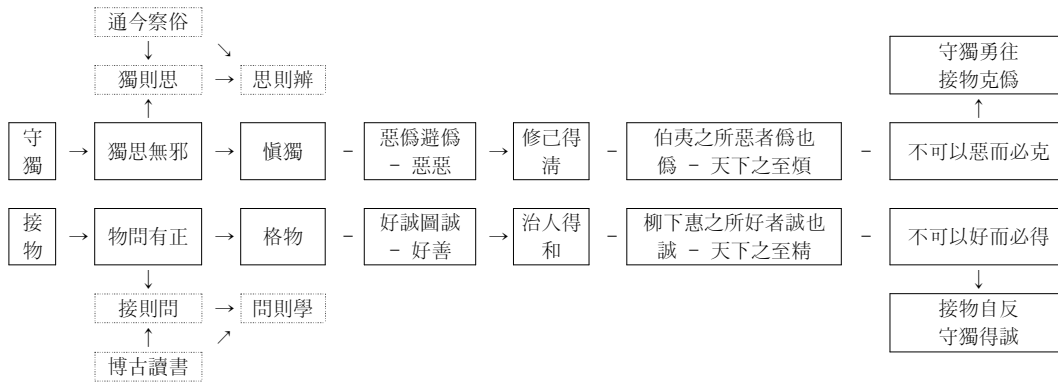


Table 3. 誠慧能勤과 誠正修一

心	身	凡		聖	雜家
		외향적·보편적	내재적·개별적		
學問思辨	誠慧能勤	知性 - 致知性 - 養性 知物 - 明萬物 - 格物 知天下 - 立天下 - 任重 知國 - 通經國 - 敬國	誠意 正心 修身 一力	意誠能性 心正能物 身修能天下 家齊能國	佛氏之性 絕知寂意 告子之心 拒物堅心 淺士之身 苟安尊身 愚民之家 忘國利家

행동윤리인 智禮義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이 된다²⁷⁾.

한편, 「四戒」·「天勢」·「天時」·「天下索我」·「遊世箴」등 예서는 '意心身力을 誠正修一'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誠慧能勤의 발전된 개념이자, 外的 發顯으로 이해하겠다. 단, 여기서는 致知·誠意를 誠 格物·正心을 慧, 平天下·修身을 能 治國·齊家를 勤과 연계한다.

「天時」에서는 意心身力을 誠正修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진다. 이는 『大學』의 八條目에 대한 재해석으로 인간의 내재적·개별적 요소인 誠意·正心·修身·齊家(一力)는 외향적·보편적 요소인 格物·致知·治國·平天下 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致知性하여 養性하고, 明萬物하여 格物하고, 立天下하여 任重하고, 通經

國하여 敬國하면²⁸⁾, 性·物·天下·國을 知하게 되고, 誠意·正心·修身·一力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擴充되면 성인의 경지로 意心身家가 誠正修齊하게 되며, 性·物·天下·國에 能하게 된다고 하였다²⁹⁾(Table 3).

「四戒」에서는 인간 기능의 네 가지 요소를 口心身力이라 하며, 純仁賢實하고³⁰⁾ 慎密飭節할 것³¹⁾을 강조하였다. 純仁賢實을 잘 하지 못하면 口心身力은 私放逸慾의 心慾으로 돌아가게 되고³²⁾, 慎密飭節하면 마침내 誠正修齊 할 수 있다고 하였으

爲辨所得之也 故其慾人有之詐 莫之陷也 以其格物致知之慧 爲問所得之也 故其放縱乎之侈 莫之陷也 以其誠意正心之能 爲思所得之也 故其安逸顯之懶 莫之迷也

27) 『格致彙·儒略 事物』 3-2 不可不反誠然後 與衆同濟而不憂患也 不可不克勤然後 與物俱立而不恐懼也 不可不擴慧然後 有學有教而不忿懣也 不可不通能然後 有爲有守而不好樂也

28) 『格致彙·儒略 天時』 6-2 不致知性 難爲誠意 不明萬物 難爲正心 不立天下 難爲修身 不通經國 難爲一力 『格致彙·儒略 天時』 6-4 不反妄私 何以養性 不精切磋 何以格物 不高志節 何以任重 不恥陋慾 何以敬國

29) 『格致彙·儒略 天時』 6-5 致知誠意 意誠能性 格物正心 心正能物 信天下修身 身修能天下 忠國齊家 家齊能國

30) 『格致彙·儒略 四戒』 1-1 口不可以不純 心不可以不仁 身不可以不賢 力不可以不實

31) 『格致彙·儒略 四戒』 1-4 口不可以不慎 心不可以不密 身不可以不飭 力不可以不節

32) 『格致彙·儒略 四戒』 2-3 純口純心 純心有術 純口不得 反於私也 仁心仁心 仁心有術 仁心不得 反於放也 賢身賢身 賢身有術 賢身不得 反於逸也 實力實力 實力有術 實力不得 反於慾也

Table 4. 인간사회에서의 智禮義仁

一天之同胞 四方之會通 百工之和利 萬物之群居	-	好德 周密 有恥 謹厚	↔	嗜利 格戾 偷惰 殘刻	-	不智 無禮 無義 不仁	薄夫 懦夫 鄙夫 頑夫	憂患 忿懣 好樂 恐懼	⇒	反誠 擴慧 遍能 克勤	與衆同濟 有學有教 有爲有守 與物俱立	不憂患 不忿懣 不好樂 不恐懼
----------------------------------	---	----------------------	---	----------------------	---	----------------------	----------------------	----------------------	---	----------------------	------------------------------	--------------------------

며³³⁾, 定如天地·止如泰山·行如長江·成如四時의 비유를 두어 口心身力의 단속을 강조하고 있다³⁴⁾.

③ 齋侈懶詐 (一心之不善)

私放逸慾의 一心之慾으로부터 齋侈懶詐의 不善(一心之不善³⁵⁾한 邪心이 생기며³⁶⁾, 이로 인해 개별적 윤리인 誠慧能勤을 어그러뜨리고 決覺行止에 있어 偏過不及倚하게 하는 현상이 발생 한다³⁷⁾. 즉 齋侈懶詐는 誠慧能勤을 가리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誠慧能勤이 齋侈懶詐와 섞이게 되면 不誠·無慧·無能·不勤한 것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하였다³⁸⁾.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一身 決覺行止의 性이며 用인 誠慧能勤을 확충함으로써, 齋侈懶詐의 邪心을 물리쳐야 하며, 이것이 더욱 확충되면 보편적 행동윤리인 智禮義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³⁹⁾.

④ 智禮義仁 (萬身之用 / 보편적 행동윤리)

智禮義仁은 인간사회에서 보편적 행동윤리(萬身之用⁴⁰⁾)가 되는 것으로 『格致藁·儒略』의 주제이자 목표라 할 수 있으며 東武公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⁴¹⁾.

다양한 인간사회(一天之同胞/四方之會通/百工之和利/萬物之群居) 속에서 不智·無禮·無義·不仁하면 항상 憂患·忿懣·好樂·恐懼하게 된다고 하였고(薄夫·懦夫·鄙夫·頑夫),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개별적 행동윤리인 反誠·擴慧·遍能·克勤으로부터 수양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다(Table 4).

智禮義仁은 事心身物에서 그 周恭敬效가 나타나고 이는 善終, 反求, 有恥, 先始를 의미한다고 하였다⁴²⁾. 한편 仁과 智, 禮와 義가 서로 相補하여야 비로소 온전한 智禮義仁이 된다고 하여 仁과 智, 禮와 義의 兼修를 강조하였다⁴³⁾.

⑤ 驕矜伐夸 (萬心之不善)

驕矜伐夸(萬心之不善)라는 不善한 邪心은 올바른 智禮義仁의 발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智禮義仁을 얻은 자가 驕矜伐夸하게 되면 不智·無禮·無義·不仁한 것을 통솔할 수 없다고 하여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⁴⁴⁾.

이상의 人間의 心身차원을 개괄하면 다음의 (Table 5)와 같다.

2) 心身과 事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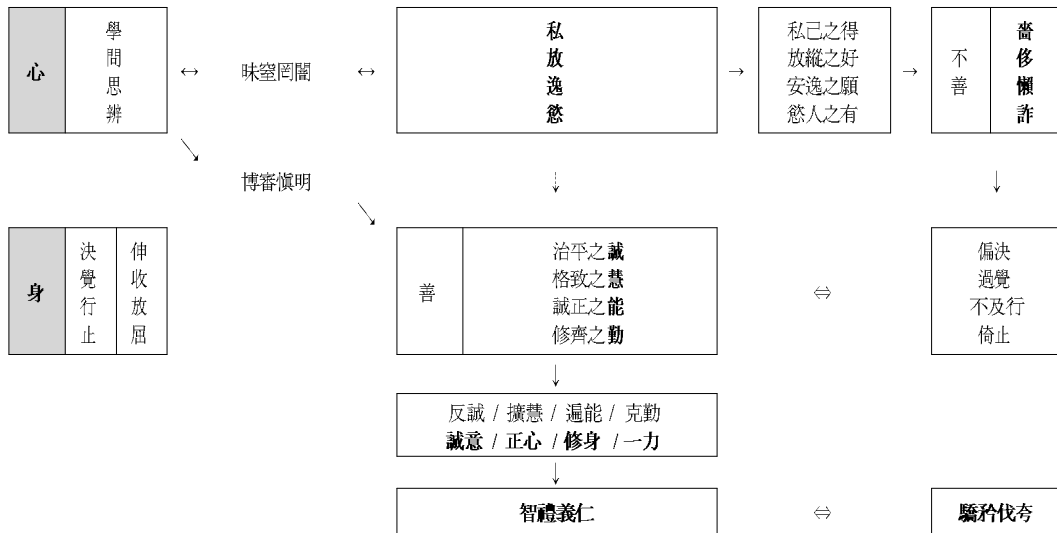
① 心身과 物과의 관계 (개별적 天下와의 관계)

意慮膽志는 物四端으로서 心身(身중심)이 物에 작용하여 일을 도모하기 위한 실천적인 심리영역의 개념(內在的 感情⁴⁵⁾)이라고 하였다⁴⁶⁾. 이러한

33) 『格致藁·儒略 四戒』 2-4 慎口慎口 慎口有成 慎口益慎 終焉誠也 密心密心 密心有成 密心益密 終焉正也 飭身飭身 飭身有成 飭身益飭 終焉修也 節力節力 節力有成 節力益節 終焉齊也
34) 『格致藁·儒略 四戒』 3-2 宜乎 止如泰山 行如長江 成如四時 定如天地
35) 一心之慾인 私放逸慾으로부터 생기고, 一身之用인 誠慧能勤을 방해하는 요소이므로 一心之不善이라 칭하였다.
36) 『格致藁·儒略 事物』 4-1 民有私己之得也 所以齋也 民有慾人之有也 所以詐也 民有放縱之好也 所以侈也 民有安逸之願也 所以懶也
37) 『格致藁·儒略 事物』 2-1 齋心偏也 詐心倚也 侈心過也 懶心不及也
『格致藁·儒略 事物』 2-2 偏心偏決也 倚心倚止也 過心過覺也 不及心不及行也
38) 『格致藁·儒略 觀仁』 3-9 苟志於誠矣 勿雜於齋也 雜齋則 不足以勝不誠者矣
39) 『格致藁·儒略 事物』 5-4 斥齋而反誠 則智無偏矣 却詐而趨勤 則仁無倚矣 戒侈而治慧 則禮無過矣 警懶而習能 則義無不及矣
40) 인간사회의 보편적 행동윤리이며, 一身之用인 誠慧能勤의 擴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이므로 萬身之用이라 칭하였다.

41) 『格致藁·儒略 事物』 3-3 昧昧我後蒙思之 古之聖人言必稱仁義禮智者 誠以一身重寶 不可失也 ...
42) 『格致藁·儒略 觀仁』 1-1 觀仁何也 觀效也 觀智何也 觀周也 觀禮何也 觀恭也 觀義何也 觀敬也 .
『格致藁·儒略 觀仁』 1-3 效於物何也 善始也 周於事何也 善終也 恭於心何也 反求也 敬於身何也 有恥也
43) 『格致藁·儒略 觀仁』 1-6 不智之仁 姑息之仁也 似仁而非仁也 不仁之智 奸猾之智也 似智而非智也 無義之禮 苛妄之禮也 似禮而非禮也 無禮之義 武斷之義也 似義而非義也
44) 『格致藁·儒略 觀仁』 3-9 ... 既得於智矣 勿繼以驕也 繼驕則 不足以帥不智者矣...
45) 조황성, 고병희, 송일병, 李濟馬의 格致藁 중 「儒略」에 관한 고찰. 사상학회지 1991;3(1):p53.
46) 지규용. 東武격치고역해. p70.

Table 5. 心身



物四端이 지향하는 덕목을 周和整濟라고 하였고, 物이善 하게 완성된 세계라고 하였다. 개별적 개념에 있어 행동의 기본 윤리인 誠慧能勤에 의해서 意慮瞻志는 그 목표인 周和整濟를 완성할 수 있고, 周和整濟가 오래되고 意慮瞻志가 확충된 것이 바로 誠慧能勤이 된다⁴⁷⁾.

天下가 周和整濟하기 위해서는 우선 我의 周和整濟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고⁴⁸⁾, 善인 周和整濟의 반대 개념인 竊妬欺奪(物四端之不善)의 不善 또한 天下의 것에 我의 것이 선행된다고 하였다⁴⁹⁾. 이러한 物四端이 不善하게 되는 원인은 一心之慾인 私放逸慾에 있다⁵⁰⁾.

또한, 모든 사람이 私放逸慾으로 竊妬欺奪하더라도 한 사람의 誠慧能勤이라도 周和整濟 하면 이

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⁵¹⁾, 天心의 意慮瞻志는 항상 周和整濟하고, 人心은 항상 竊妬欺奪하지 않으려 하니 이것이 天理人慾의 恒常된 모습이라고 하였다⁵²⁾.

이상을 요약하면, 인간세계에 인간이 개별적으로 처하여 살아감에 있어 갖게 되는 내재적 감정의 표현이 意慮瞻志가 되는데, 이때 인간은 一心之慾인 私放逸慾에서 비롯되는 竊妬欺奪의 不善에 의해 가려지기가 쉽고, 이의 극복은 개별적 행동윤리인 誠慧能勤을 확충하여 周和整濟 하게 하는데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 개개에 내재된 是非·辭讓·羞惡·惻隱之心으로 보편적 윤리인 智禮義仁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별적 요소가 된다(Table 6).

47) 『格致藁·儒略 志貌』 1-2 莫非志也 莫非濟也 濟久而充志者 勤者志也 莫非瞻也 莫非整也 整久而充瞻者 能者瞻也 莫非慮也 莫非和也 和久而充慮者 慧者慮也 莫非意也 莫非周也 周久而充意者 誠者意也
 48) 『格致藁·儒略 志貌』 2-1 天下樂濟 我濟也 斯濟至也 天下喜整 我整也 斯整至也 天下怒不和 我和也 斯和至也 天下哀不周 我周也 斯周至也
 49) 『格致藁·儒略 志貌』 2-2 天下憂奪 我奪也 人不得已奪也 天下羨欺 我欺也 人不得已欺也 天下角妬 我妬也 人不得已妬也 天下愁竊 我竊也 人不得已竊也
 50) 『格致藁·儒略 志貌』 2-3 志之不善 非志才之罪也 慾之罪也 瞻之不善 非瞻才之罪也 逸之罪也 慮之不善 非慮才之罪也 放之罪也 意之不善 非意才之罪也 私之罪也

51) 『格致藁·儒略 志貌』 2-7 衆慾相奪 一勤濟之則 天下之志憂者 皆樂之矣 樂之者 孰能禦之乎 衆逸相欺 一能整之則 天下之瞻該者 皆喜之矣 喜之者 孰能禦之乎 衆放相妬 一慧和之則 天下之慮角者 皆不怒之矣 不怒之者 孰能禦之乎 衆私相竊 一誠周之則 天下之意愁者 皆不哀之矣 不哀之者 孰能禦之乎
 52) 『格致藁·儒略 志貌』 2-8 天心之志 恒欲濟而 人心之志 皆不欲奪也 欲濟者惻也 不欲奪者隱也 然則 無惻隱之兩端者 非天理人欲之志也 天心之瞻 恒欲整而 人心之瞻 皆不欲欺也 欲整者羞也 不欲欺者惡也 然則 無羞惡之兩端者 非天理人欲之瞻也 天心之慮 恒欲和而 人心之慮 皆不欲妬也 欲和者辭也 不欲妬者讓也 然則 無辭讓之兩端者 非天理人欲之慮也 天心之意 恒欲周而 人心之意 皆不欲竊也 欲周者是也 不欲竊者非也 然則 無是非之兩端者 非天理人欲之意也

Table 6. 心身과 物과의 관계 (개별적 天下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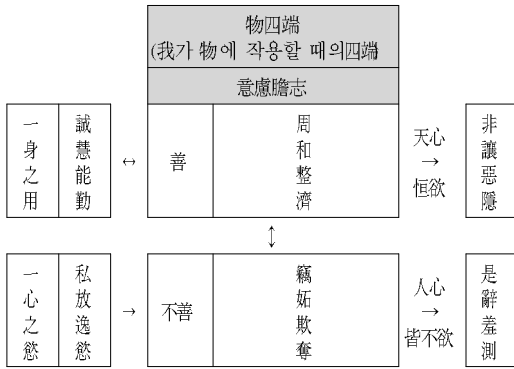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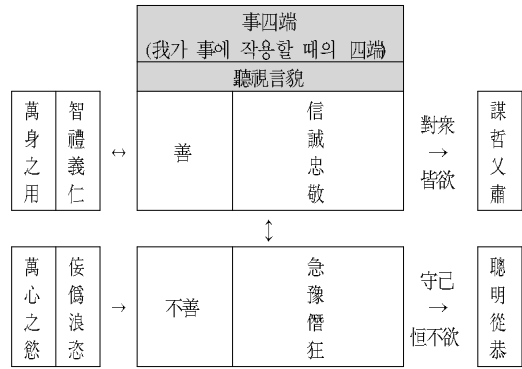


Table 7. 心身과 事와의 관계 (보편적 세계와의 관계)



② 心身과 事와의 관계 (보편적 세계와의 관계)
 聽視言貌의 事四端은 心身(心중심)이 事に 작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표현(外顯的 表現⁵³⁾)이라고 하였다⁵⁴⁾. 이러한 事四端이 지향하는 도덕적 당위목표를 信誠忠敬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事가 善하게 완성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 개념에 있어 행동의 기본 윤리인 智禮義仁에 의해서 聽視言貌의 事四端은 그 목표인 信誠忠敬의 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며, 信誠忠敬이 오래되고 聽視言貌가 확충되면 智禮義仁의 보편적 윤리에 도달하게 된다⁵⁵⁾.

天下가 信誠忠敬하기 위해서는 우선 我의 信誠忠敬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고⁵⁶⁾, 반면에 善인 信誠忠敬의 반대 개념인 急豫僭狂(事四端之不善)의 不善 또한 我의 것이 선행된다고 하였다⁵⁷⁾. 이러한 事四端이 不善하게 되는 원인은 佞僞浪恣(萬心之慾⁵⁸⁾)에 있다고 하였다⁵⁹⁾.

모든 사람이 佞僞浪恣로 急豫僭狂한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信誠忠敬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못사람들과 對하는 聽視言貌는 항상 信誠忠敬하고자 하고, 자기를 지키는 그것은 항상 急豫僭狂하지 않으려고 하니 이것이 道心人心의 恒常된 모습이라고 하였다⁶⁰⁾.

이상을 요약하면, 인간세계에 인간이 모여 무리를 이루고 보편적으로 처하여 살아감에 있어 갖게 되는 外顯的 表現이 聽視言貌가 되는데, 이때 인간은 萬心之慾인 佞僞浪恣에서 비롯되는 急豫僭狂의 不善에 의해 가려지기가 쉽고, 이의 극복은 보편적 행동윤리인 智禮義仁에 의해 信誠忠敬하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③ 事와 心, 物과 身과의 관계

「天下」에서는 인간세상을 天下로 표현하고 이를 보편적 天下와 개별자의 집합체로서의 天下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心身の 事物과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보편적인 관점에서의 天下는 지극히 蕩大廣邈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사회는 기본적으로 散取群居(散合群居)한 행동양태가 있는데 그 특성

53) 조황성, 고병희, 송일병. 李濟馬의 格致藁 중 儒略 에 관한 고찰. 사상학회지. 1991;3(1):53.
 54) 지규용. 東武격치고역해. p72.
 55) 『格致藁·儒略 志貌』 1-4 莫非貌也 莫非敬也 敬久而充者 仁者貌也 莫非言也 莫非忠也 忠久而充者 義者言也 莫非視也 莫非誠也 誠久而充者 禮者視也 莫非聽也 莫非信也 信久而充者 智者聽也
 56) 『格致藁·儒略 志貌』 2-4 天下恭敬 我敬也 斯敬至也 天下從忠 我忠也 斯忠至也 天下明誠 我誠也 斯誠至也 天下聽信 我信也 斯信至也
 57) 『格致藁·儒略 志貌』 2-5 天下慢狂 我狂也 人必應以慢也 天下詭僭 我僭也 人必應以詭也 天下蔑豫 我豫也 人必應以蔑也 天下瞞急 我急也 人必應以瞞也
 58) 보편적 차원에서의 心慾으로 추정되며, ‘一心之慾’인 私放逸慾과 비교하여 萬心之慾’이라 칭하였다.
 59) 『格致藁·儒略 志貌』 2-6 貌之不善 非貌才之罪也 恣之罪也 言之不善 非言才之罪也 浪之罪也 視之不善

非視才之罪也 僞之罪也 聽之不善 非聽才之罪也 佞之罪也
 60) 『格致藁·儒略 志貌』 2-10 對衆之貌 皆欲敬而 守己之貌 恒不欲狂也 欲敬者肅也 不欲狂者恭也 然則無肅恭之兩隅者 非道心人心之貌也 對衆之言 皆欲忠而 守己之言 恒不欲僭也 欲忠者艾也 不欲僭者從也 然則無艾從之兩隅者 非道心人心之言也 對衆之視 皆欲誠而 守己之視 恒不欲豫也 欲誠者 哲也 不欲豫者 明也 然則 無哲明之兩隅者 非道心人心之視也 對衆之聽 皆欲信而 守己之聽 恒不欲急也 欲信者 謀也 不欲急者 聽也 然則 無謀聽之兩隅者 非道心人心之聽也

Table 8. 天下속에서의 事와 心, 物과 身과의 상관관계

天下	보편적 天下		개별자의 집합체로서의 天下	
	행동양식 散取群居	기본특징 蕩大廣邈	행동양식 決遇動止	기본특징 救成助趨
人間	I 事之用 : 謀哲又肅 ↓ 心 - 學問思辨 ⇒ 博審慎明		I 物之用 : 知謀勇利 ↓ 身 - 伸收放屈 ⇒ 豁弘廓積	

또한 蕩大廣邈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⁶¹⁾. 이러한 상황에서 一心의 學問思辨은 博審慎明(心之用)하니 이는 事四端의 用인 謀哲又肅의 功能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⁶²⁾, 心四端의 用이 事四端의 用에 의해서 그 功效가 드러나 天下의 蕩大廣邈한 상황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개별자의 집합체로서의 天下는 決遇動止하는 개별자들이 서로 救成助趨하는 속성을 가지게 되어⁶³⁾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一身의 伸收放屈은 豁弘廓積하려고 하는데 이는 物四端의 用인 知謀勇利의 功能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⁶⁴⁾(Table 8).

3. 天下

1) 窮困賤貧과 達顯貴富

보편적인 인간사회에서 가장 원초적으로 중시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위치에 대한 것이며, 「天下」에서는 이를 窮困賤貧과 達顯貴富라 요약하였고, 그 準則을 각각 개별적 행동윤리인 誠慧能勤과 보편적 행동윤리인 智禮義仁으로 정의하였다.

窮困賤貧의 義는 誠慧能勤이라 하였고, 개별적 행동 윤리인 誠慧能勤을 갖추면 散取群居하는 보편적 사회 속에서 窮困賤貧을 근심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⁶⁵⁾. 이는 보편적 사회 속에서 개별적 행

Table 9. 窮困賤貧과 達顯貴富

개별적 행동 윤리 : 誠慧能勤	보편적 행동 윤리 : 智禮義仁
↓	↓
보편적 사회로의 확충(원심적)	개별적 인간으로의 확충(구심적)
↓	↓
개별적 가치(窮困賤貧의 극복)	보편적 가치(達顯貴富의 완성)

동 윤리인 誠慧能勤을 지켜나가고, 보편적 행동 양태인 散取群居의 생활 속에서 확충시켜 나간다면 窮困賤貧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개별적 인간의 誠慧能勤을 보편적 사회로 확충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원심적).

達顯貴富의 道는 智禮義仁이라 하였고, 智禮義仁을 갖추면 決遇動止하는 개별적 인간관계 속에서 達顯貴富를 밟고 잘난 체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⁶⁶⁾. 이는 達顯貴富에 안주하지 않고, 보편적 행동 윤리인 智禮義仁을 지켜나간다면, 決遇動止라는 개별적 인간관계 속에서 올바른 智禮義仁의 道를 이룰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사회 속에서 보편적 윤리인 智禮義仁의 완성을 이루고 이를 개별적 인간 개개로 확충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구심적)(Table 9).

한편 개별적 인간관계 속에서 智禮義仁으로써 하게 되면 物四端의 用인 知謀勇利가 더욱 확충되어 達顯貴富의 道를 얻을 수 있게 되고⁶⁷⁾, 여러 사

61) 『格致藁·儒略 天下』 1-1 天下極邈 爲居者極邈也 天下極廣 爲群者極廣也 天下極大 爲合者極大也 天下極蕩 爲散者極蕩也

62) 『格致藁·儒略 天下』 1-2 辨所以明也 肅極邈也 思所以慎也 艾極廣也 問所以審也 哲極大也 學所以博也 謀極蕩也

63) 『格致藁·儒略 天下』 2-1 天下相趨 爲止者相趨也 天下相助 爲動者相助也 天下相成 爲遇者相成也 天下相救 爲決者相救也

64) 『格致藁·儒略 天下』 2-2 屈所以積也 利相趨也 放所以廓也 勇相助也 收所以弘也 謀相成也 伸所以豁也 知相救也

65) 『格致藁·儒略 天下』 1-3 貧之義勤也 故所居不患貧也

賤之義能也 故所群不患賤也 困之義慧也 故所合不患困也 窮之義誠也 故所周不患窮也

66) 『格致藁·儒略 天下』 2-3 富之道仁也 故所止不恃富也 貴之道義也 故所動不恃貴也 顯之道禮也 故所遇不恃顯也 達之道智也 故所決不恃達也

67) 『格致藁·儒略 天下』 2-7 仁之所行 利與重焉 義之所行 勇有奇焉 禮之所行 謀亦至焉 智之所行 知又切焉

Table 10. 天下와 智禮義仁 - 「天勢」

天勢·世會·人倫·地方 / 天機·世途·人身·地址 - 權變·器率·行檢·作處			
智禮義仁者 存 - 智禮義仁	英豪傑雄者 勞 - 智禮義仁	黠巧潔便者 用 - 智禮義仁	衆意心身形 同 - 智禮義仁
↓	↓	↓	↓
聖之性	天之民	世之人	衆之秉
↓	↓	↓	↓
仁義禮智之心 成性樂天	英雄豪傑之心 格物治平	滔滔一世之願 富貴顯達	億兆公同之戒 貧賤困窮

람과 더불어 知謀勇利를 활용한다면 이 또한 보편적 행동윤리인 智禮義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였다⁶⁸⁾.

2) 天下와 智禮義仁

「天勢」에서는 보편적 事物의 세계에 있어 智禮義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를 天勢·世會·人倫·地方의 보편적 개념⁶⁹⁾과 天機·世途·人身·地址의 개별적·단위적 개념으로 나누어 표현하고⁷⁰⁾, 이에 대하여 인간은 살아가기 위한 원초적인 요소로 智禮義仁 四端이 되는 權變·器率·行檢·作處라는 덕목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⁷¹⁾. 또한 이것의 궁극적 목표는 智禮義仁의 완성인데 그 정도에 따라 네 등급이 있다고 하였다(Table 10).

첫째, 權變·器率·行檢·作處가 黠巧潔便하기를 爭하며⁷²⁾, 智禮義仁을 行하게 되는 黠巧潔便자가 있는데⁷³⁾, 黠巧潔便者는 智禮義仁을 用할 수 있다고 하였다⁷⁴⁾.

둘째, 天機·世途·人身·地址에서 權變·器率·行檢·作處는 達顯貴富하고자 하는데⁷⁵⁾, 天勢·世會·人倫·地方를 헤아리려 하고⁷⁶⁾, 이렇게 되면 智禮義仁을 得하게 되는데 이를 智禮義仁者라 하고⁷⁷⁾, 智禮義仁者는 智禮義仁을 存한다고 하였다⁷⁸⁾.

셋째, 萬 天勢·世會·人倫·地方 속에서 周察·黠通·正直·誠信 하고⁷⁹⁾, 크게 權變·器率·行檢·作處하면 英豪傑雄이 되고⁸⁰⁾ 美한 智禮義仁을 갖게 되어, 이 智禮義仁이 存心하게 되고 意誠·心正·身修·家齊하게 된다고 하였다(→英豪傑雄者)⁸¹⁾. 英豪傑雄者는 智禮義仁에 勞한다고 하였다⁸²⁾.

넷째, 인간의 모습을 意心身形으로 표현하여 이것이 通環·出奇·行正·好活하게 되면 多變·暗算·自復·愛得하게 되어 智禮義仁이 된다고 하였다(→衆意心身形)⁸³⁾. 이는 후천적 노력이 더해지

68) 『格致藁·儒略 天下』 2-11 與衆利也 利亦仁也 與衆勇也 勇亦義也 與衆謀也 謀亦禮也 與衆知也 知亦智也
69) 『格致藁·儒略 天勢』 1-1 天勢浩濶 世會紛競 人倫蕃殖 地方曠逸
70) 『格致藁·儒略 天勢』 2-1 天機恒轉 世途恒盪 人身恒慎 地址恒固
71) 『格致藁·儒略 天勢』 2-8 權變之心 是非之端也 器率之心 恭敬之端也 行檢之心 羞惡之端也 作處之心 惻隱之端也
72) 『格致藁·儒略 天勢』 1-3 權變爭黠 器率爭巧 行檢爭潔 作處爭便
73) 『格致藁·儒略 天勢』 1-6 傾惡之勢 行智之勢也 興利之會 行禮之會也 修善之倫 行義之倫也 保生之方 行仁之方也
74) 『格致藁·儒略 天勢』 6-6 權變爭黠 黠者用智 器率爭巧 巧者用禮 行檢爭潔 潔者用義 作處爭便 便者用仁

75) 『格致藁·儒略 天勢』 2-2 權變欲達 器率欲顯 行檢欲貴 作處欲富
76) 『格致藁·儒略 天勢』 2-3 欲達圖勢 欲顯圖會 欲貴圖倫 欲富圖方
77) 『格致藁·儒略 天勢』 2-4 圖勢得智 圖會得禮 圖倫得義 圖方得仁
78) 『格致藁·儒略 天勢』 6-2 天機恒轉 智者存智 世途恒盪 禮者存禮 人身恒慎 義者存義 地址恒固 仁者存仁
79) 『格致藁·儒略 天勢』 3-1 萬物附地 誠信者得衆 萬身行倫 正直者帥群 萬器湊世 黠通者持統 萬建蔽天 周察者用
80) 『格致藁·儒略 天勢』 3-2 何名之雄 大作處也 何名之傑 大行檢也 何名之豪 大器率也 何名之英 大權變也
81) 『格致藁·儒略 天勢』 5-5 智在存心 是謂意誠 意若得誠 其意無意 禮在存心 是謂心正 心若得正 其心無必 義在存心 是謂身修 身若得修 其身無固 仁在存心 是謂家齊 家若得齊 其家無我
82) 『格致藁·儒略 天勢』 6-4 天勢浩濶 英者勞智 世會紛競 豪者勞禮 人倫蕃殖 傑者勞義 地方曠逸 雄者勞仁

지 않은 인간의 원초적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意心身力이 智禮義仁에 同한다고 하였다.

3) 天下와 誠慧能勤

「我止」에서는 개별적 天下속에서 살아가는 我의 決遇行止가 誠慧能勤하는 것은 當爲의 이고, 先驗의 인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는 誠慧能勤이라는 개별적 행동 윤리의 道德的 當爲性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意心身力이 誠正修一 하는 것은 이와 통한다 할 수 있다.

天下에 처하여 있는 我에게는 事心身家가 있는데 이는 天下의 天衆局地에 포함된 개별적 존재의 것이며⁸⁴⁾, 天衆局地는 개별적 我的 事心身家を 양육하고 베풀어 주는 존재이다⁸⁵⁾. 我是 개별적 事心身家에서 決遇行止 하는데⁸⁶⁾ 이때 天下의 天衆局地는 我에게 誠慧能勤할 것을 命하는데, 이는 當爲의이며 先驗的 命에 해당되는 것이다.

我的 決遇行止는 다양한데, 그 가운데서 決遇行止하고 또 決遇行止하면 大한 決遇行止가 이루어진다고 하였고⁸⁷⁾, 만약 不止以止, 當決不決, 賴人僥倖, 怠吾當行하게 되면 내 안에 私放逸慾의 邪心이 생긴다고 하였다⁸⁸⁾. 大한 決遇行止를 이루면 誠慧能勤은 無敵의 것이고, 當時·大衆·廣局·疆場하게 된다고 하였다(Tabl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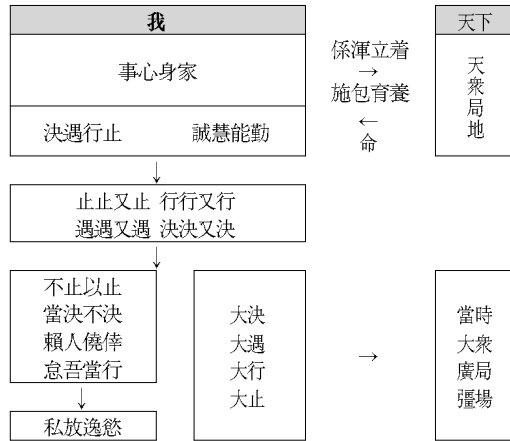
4) 天下와 誠正修一

意心身力을 誠正修一하는 것은 개별적 행동 윤리인 誠慧能勤의 발전적 개념으로 我가 天下에 處하여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개인윤리이다.

① 「天時」

「天時」에서는 天下의 物的 인 측면을 설명하고, 그에 處하여 살아가는 인간은 개인적인 노력과 더

Table 11. 天下와 誠慧能勤 - 我止」



불어 사회적 當여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意心身力을 誠正修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하여 개별적 행동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天世人地에는 時財才利가 있는데 마땅히 察通修權해야 한다⁸⁹⁾. 이때 개인의 智能材力만으로는 어렵고 사회적(交類徒服 友客儕曹)으로 議論·謀猷·勸勉·勞來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였다⁹⁰⁾. 交類徒服은 耳目·作爲·衛捍·保護를 통해 만들어 지거나⁹¹⁾, 意慮瞻志를 살핌으로써 형성되는데⁹²⁾, 交類徒服을 이루어 議論·謀猷·勸勉·勞來 하는데는 진실과 거짓이 공존하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신의 智能材力을 驕矜伐夸하지 말고⁹³⁾, 意慮瞻志를 言蘊容勞로 잘 헤아리고 살피서 성실하게 해야 하며⁹⁴⁾, 자신의 意心身力을 誠正修一하게 하여야만 헤아리기 어려운 다른 사람의 意慮瞻志를

83) 『格致藁·儒略 天勢』 6-8 意頭環環 衆意同智 心上出奇 衆心同禮 身表行正 衆身同義 形止好活 衆形同仁
 84) 『格致藁·儒略 我止』 1-2 我家着地 地命我勤 我身立局 局命我能 我心渾衆 衆命我慧 我事係天 天命我誠
 85) 『格致藁·儒略 我止』 1-4 地養萬家 不吝其利 局育萬身 不吝其材 衆包萬心 不吝其謀 天施萬事 不吝其時
 86) 『格致藁·儒略 我止』 1-1 我止在地 地有家也 我行在我 我有身也 我遇在人 人有心也 我決在天 天有事也
 87) 『格致藁·儒略 我止』 2-5 止止又止 終成大止 行行又行 終成大行 遇遇又遇 終成大遇 決決又決 終成大決
 88) 『格致藁·儒略 我止』 2-6 不止以止 中藏慾心 當決不決 中藏私心 意勢引遠 萬倍得也 志量確深 萬倍利也
 『格致藁·儒略 我止』 2-7 賴人僥倖 內懷放心 怠吾當行 內懷逸慾 身先當行 天下助也 心絕僥倖 四方佑也

89) 『格致藁·儒略 天時』 1-1 天有天時 世有世財 人有人才 地有地利
 『格致藁·儒略 天時』 1-2 天時宜察 世財宜通 人才宜修 地利宜權
 90) 『格致藁·儒略 天時』 1-4 獨智難辦 議論最良 獨能難當 謀猷最賢 獨材難任 勤勉最長 獨力難措 勞來最急
 91) 『格致藁·儒略 天時』 2-6 其交耳目 其類作爲 其徒衛捍 其服保護
 92) 『格致藁·儒略 天時』 2-7 觀意相合 觀慮相同 觀瞻相親 觀志相近
 93) 『格致藁·儒略 天時』 3-4 莫驕爾智 爾智或淺 莫矜爾能 爾能或薄 莫伐爾材 爾材或拙 莫夸爾力 爾力或戾
 94) 『格致藁·儒略 天時』 4-2 究之以言 以實其意 探之以蘊 以實其慮 矚之以容 以實其瞻 揣之以勞 以實其志

Table 12. 天下와 我的 상관관계 - 「天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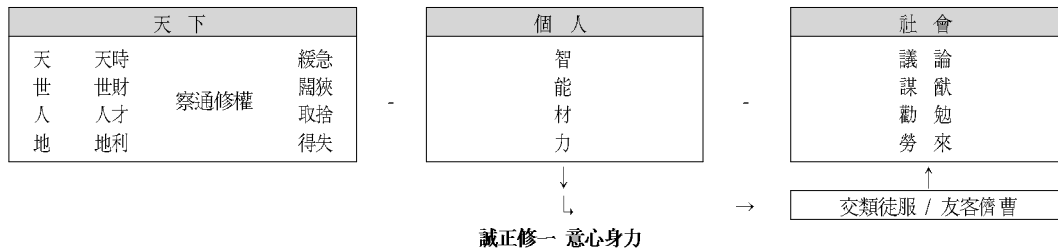


Table 13. 天下와 我的 상관관계 - 「天下索我」



다 할 수 있으니 그러지 못하면 友客儕曹를 이루기가 어렵게 된다고 하였다⁹⁵⁾(Table 12).

② 「天下索我」

「天下索我」에서는 天下가 我를 속이고, 시험하려 해도 我的 意心身力을 誠正修一하게 하는 개별적 행동윤리가 선행되어야 성공적인 사회적 참여 활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天下와 我的 상호관계 속에서 天下의 못 사람들은 我를 속이려고(誑詒譎佯) 하고⁹⁶⁾, 나의 誠正修一을 시험하려고 하며⁹⁷⁾, 나의 意心身力을 회롱하려고 한다⁹⁸⁾. 이 상황에서 도리어 내가 남을 속이거나 해서는 안 되고, 나의 意心身力을 더욱 誠正修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誠正修一과 誑詒譎佯은 인간이 具有하고 있는 것으로 修養의 차이에 따라 비롯되는 것인데⁹⁹⁾, 誠正修一하면 意心身力이

信淑·光明·正大·勤實하게 되어 좋은 友客徒服을 두게 되지만¹⁰⁰⁾, 誑詒譎佯하면 反側·憊味·偷惰·拙劣하게 된다¹⁰¹⁾(Table 13).

意心身力을 誠正修一한다는 것은 인간이 天下에서 살아가면서 守獨하거나 接物하게 되는 데, 學問思辨을 철저히 하여 私放佚慾의 心慾을 억제하고, 慎獨·格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4) 大衆敎化的 차원 - 「土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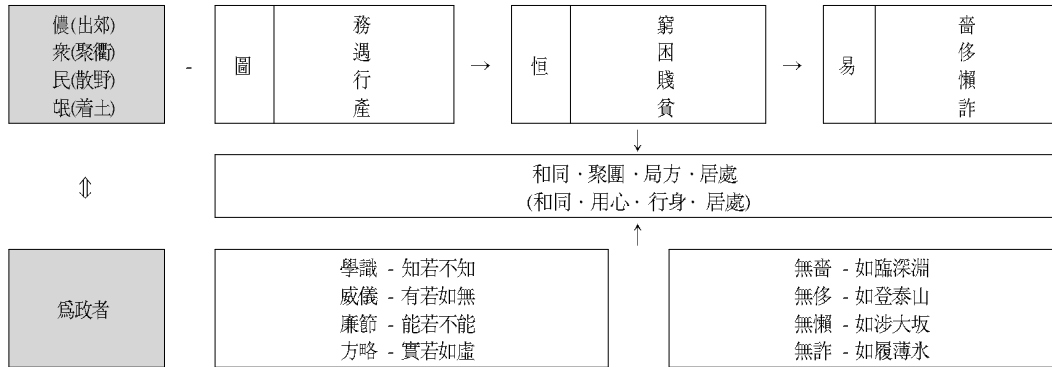
대중(農衆民氓)을 다스리고, 도덕적 교화를 위해서는 그들과 어우러짐(和團局)에 있어 決覺行止(和同·用心·行身·居處) 함에 耆侈懶詐의 邪心을 경계하고 誠慧能勤(學識·威儀·廉節·方略) 할 것을 강조했다 할 수 있다.

農衆民氓은 환경적 영향에 따라 務遇行産만을 도모하는데¹⁰²⁾, 항상 窮困賤貧하게 되고¹⁰³⁾, 쉽게

95) 『格致藁·儒略 天時』 5-1 不誠其意 莫盡人意 不正其心 莫盡人慮 不修其身 莫盡人膽 不一其力 莫盡人志
『格致藁·儒略 天時』 5-3 不誠其意 實難接友 不正其心 實難迎客 不修其身 實難應儕 不一其力 實難用曹
96) 『格致藁·儒略 天下索我』 1-1 天下索我 以誑圖我 天下探我 以詒凌我 天下極我 以譎困我 天下覓我 以佯窘我
97) 『格致藁·儒略 天下索我』 1-2 無怪其誑 誑試汝誠 無怪其詒 詒試汝正 無怪其譎 譎試汝修 無怪其佯 佯試汝一
98) 『格致藁·儒略 天下索我』 1-4 莫嘆人意 人戲汝意 莫憤人心 人弄汝心 莫憊人身 人搖汝身 莫怨人力 人掀汝力

99) 『格致藁·儒略 天下索我』 1-6 誠誑自然 意在自然 正詒自然 心在自然 修譎自然 身在自然 一佯自然 力在自然
100) 『格致藁·儒略 天下索我』 2-6 莫誑爾意 多受人誑 必誠其意 抑有好友 莫詒爾心 多受人詒 必正其心 抑有好客 莫譎爾身 多受人譎 必修其身 抑有好徒 莫佯爾力 多受人佯 必一其力 抑有好服
101) 『格致藁·儒略 天下索我』 2-1 我意信淑 誰意反側 我心光明 誰心憊味 我身正大 誰身偷惰 我力勤實 誰力拙劣
102) 『格致藁·儒略 土氓』 1-2 氓斯圖產 民斯圖行 衆斯圖遇 農斯圖務

Table 14. 大衆敎化的 次元 - 「土垠」



蓄侈瀨詐의 邪心을 갖게 된다¹⁰⁴⁾.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이들을 다스리려고 하면 큰 반발만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¹⁰⁵⁾. 그러므로 務遇行産이 窮困賤貧해지지 않도록 儂衆民氓과 더불어 和團局居함에 學識·威儀·廉節·方略에 힘쓰게 하고 축적시켜 敎化시켜야 한다¹⁰⁶⁾.

儂衆民氓은 쉽게 蓄侈瀨詐에 빠지니 爲政者는 和同·用心·行身·居處함에 이 蓄侈瀨詐를 경계해야 하니¹⁰⁷⁾, 和同·聚團·局方·居處함에 삼가고 신중히 하기를 ‘如臨深淵·如登泰山·如涉大坂·如履薄水’하듯이 하라 하였다¹⁰⁸⁾. 그래서 無蓄·無侈·無瀨·無詐를 和同·用心·行身·居處의 大道라고 하였다¹⁰⁹⁾. 또한 學識·威儀·廉節·方略을 행함에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듯이 열심히 하라고 하였다¹¹⁰⁾, 儂衆民氓과 더불어 하라고 하였

다¹¹¹⁾(Tabl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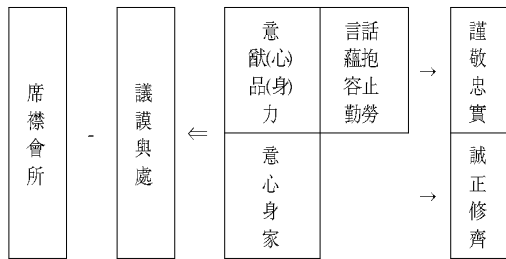
5) 社會活動的 차원 - 「遊世箴」

사람들이 모여 社會생활을 하는 가운데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席襟會所(사회적 모임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¹¹²⁾. 같은 席襟會所에서 사람들은 같은 意猷(心)品(身)力으로 서로 議謨與處하는 가운데 好惡, 愛憎, 美醜, 勤惰한 것이 있게 되고¹¹³⁾, 서로 다투고 경쟁하게 된다¹¹⁴⁾. 席襟會所를 찾는데 그 자체의 의미만을 가지고 이를 찾는다면 좋은 議謨與處는 얻기가 어려우며, 意心身家를 誠正修齊하지 않으면 진실로 議謨與處가 없게 된다¹¹⁵⁾. 또한 席襟會所가 아닌 것으로 이를 찾는다면 더욱 절멸하고 곤궁해지게 된다.

103) 『格致藁·儒略 土垠』 1-3 氓產恒貧 民行恒賤 衆遇恒困 儂務恒窮
 104) 『格致藁·儒略 土垠』 1-4 貧心易詐 賤心易瀨 困心易凌 窮心易蓄
 105) 『格致藁·儒略 土垠』 1-6 氓若妄治 氓必揚臂 民若妄帥 民必荷杖 衆若妄御 衆必按劍 儂若妄喻 儂必暗節
 106) 『格致藁·儒略 土垠』 2-2 方略之積 氓乃恭臂 廉節之鍊 民乃捨杖 威儀之蘊 衆乃解劍 學識之畜 儂乃置箭
 107) 『格致藁·儒略 土垠』 3-3 居處行詐 詐者窺詐 行身行瀨 瀨者嘲瀨 用心行侈 侈者譏侈 和同行蓄 蓄者誚蓄
 108) 『格致藁·儒略 土垠』 3-4 敬爾居處 如履薄水 戒爾局方 如涉大坂 謹爾聚團 如登泰山 慎爾和同 如臨深淵
 109) 『格致藁·儒略 土垠』 4-1 居處自有大道 一言蔽曰無詐 軍子然後無詐 行身自有大道 一言蔽曰無瀨 豪傑然後無瀨 用心自有大道 一言蔽曰無侈 大人然後無侈 和同自有大道 一言蔽曰無蓄 賢哲然後無蓄

110) 『格致藁·儒略 土垠』 3-5 卷爾方略 實若如虛 愛爾廉節 能若不能 斂爾威儀 有若如無 護爾學識 知若不知
 111) 『格致藁·儒略 土垠』 4-2 居處自有方略 天下方略任腹 居處方略與氓 局方自有廉節 天下廉節措身 局方廉節與民 聚團自有威儀 天下威儀安心 聚團威儀與衆 和同自有識見 天下識見藏胸 和同識見與儂
 112) 『格致藁·儒略 遊世箴』 1-1 同所雜起 人力相作 同會雜居 人品相獻 同襟雜立 人猷相觀 同席雜坐 人意相談
 113) 『格致藁·儒略 遊世箴』 1-2 相談相議 有好有惡 相觀相謀 有愛有憎 相獻相與 有美有醜 相作相處 有勤有惰
 114) 『格致藁·儒略 遊世箴』 1-3 好惡相反 主客必激 愛憎相博 遠近必伐 美醜相持 親疎必爭 勤惰相逆 生熟必競
 115) 『格致藁·儒略 遊世箴』 1-5 尋所以所 好處難得 訪席以席 好議難得 不齊其家 實無處也 不誠其意 實無議也
 『格致藁·儒略 遊世箴』 1-6 同襟以襟 嘉謀不易 參會以會 嘉與不易 不正其心 真無謀也 不修其身 真無與也

Table 15. 社會活動의 次元 - 「遊世箴」



좋은 席襟會所를 찾기 위해서는 意猷(心)品(身)力의 표현인 言語·蘊抱·容止·勤勞는 謹敬忠實하여야 하고¹¹⁶⁾, 佞僞荏假를 부끄럽게 여겨야 하며¹¹⁷⁾, 헛되게 남의 席襟會所를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意心身家를 誠正修齊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¹¹⁸⁾(Table 15).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意心身力의 誠正修齊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6) 國家統治의 차원 - 「大風箴」

「大風箴」에서는 국가 차원의 통치와 관련된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구성의 요소로서 大風·大衆·大方·大土가 있고, 통치의 핵심수단으로 하늘이 세워준 政權位儲가 있으며¹¹⁹⁾, 이를 위한 필요요소로서 簡選·刑罰·禮讓·綱紀가 있다고 하였다¹²⁰⁾. 또한 국가 통치덕목으로 言許遊費가 있는데 이는 正誠雅節하여야 하고 政權位儲의 機樞根本이 된다. 言許遊費의 영향은 被治者의 聽視嗅味를 통하여 들어나니¹²¹⁾ 衆·聽視嗅味는 言許遊費

116) 『格致彙·儒略 遊世箴』 1-11 言語必謹 蘊抱必敬 容止必忠 勤勞必實
 117) 『格致彙·儒略 遊世箴』 2-10 言語恥佞 何席不實 蘊抱恥僞 何襟不眞 容止恥荏 何會不平 勤勞恥假 何所不得
 118) 『格致彙·儒略 遊世箴』 2-6 莫好人席 人席有患 必誠其意 誠意無患 莫好人襟 人襟有憂 必正其心 正心無憂 莫好人會 人會有尤 必修其身 修身無尤 莫好人所 人所有累 必齊其家 齊家無累
 119) 『格致彙·儒略 大風箴』 1-6 大風天必立政 大衆天必立權 大方天必立位 大土天必立儲
 120) 『格致彙·儒略 大風箴』 2-1 大風必有簡選 大衆必有刑罰 大方必有禮讓 大土必有綱紀
 121) 『格致彙·儒略 大風箴』 3-1 大風有言 其言金玉 大衆有許 其許芝蘭 大方有遊 其遊山嶽 大土有費 其費衝鍾
 『格致彙·儒略 大風箴』 3-2 大風衆聽 衆聽竊遠 大衆衆視 衆視肅靜 大方衆嗅 衆嗅雍端 大土衆味 衆

Table 16. 國家統治의 次元 - 「大風箴」

국가 구성 요소	통치 핵심 수단	통치 필요 요소	통치덕목			被治者	
大風	政	簡選	言	正	政之機	衆聽	言之難
大衆	權	刑罰	許	誠	權之樞	衆視	許之難
大方	位	禮讓	遊	雅	位之根	衆嗅	遊之難
大土	儲	綱紀	費	節	儲之本	衆味	費之難

之難이라고 하여 조심하고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¹²²⁾(Table16).

여기서 言許遊費는 爲政者가 誠正修齊해야 할 意心身力인 것으로 유추하여 보겠다.

Ⅲ. 結 論

1. 事心身物 각각의 存在原理 및 事心身物 상호간의 관계 설정 하에서, 心身과 事物 개념 속에는 각각 ‘一’의 개별적 차원과 ‘萬’의 보편적 차원의 二元的 구조가 있는데, 이것이 『格致彙·儒略』의 기본적인 논리구조가 된다.

2. 私放逸慾의 一心之慾과 그로 인한 畚侈懶詐의 一心之不善을 가지기 쉬운 개별적 人間은 心四端인 學問思辨에서 나오는 誠慧能勤을 그 개별적 행동윤리를 삼고, 보편적 행동윤리인 智禮義仁을 완성하기 위해 意心身力을 誠正修齊하는 존재이다.

3. 天下속의 인간이 개별적 차원의 내재적 심리 영역인 意慮膽志(物四端)와 보편적 차원의 外顯의 表現인 聽視言貌(事四端)를 갖게 되는데, 이때 인간은 心慾에 의한 不善에 가려지기 쉬우며, 이의 극복을 위해 개별적 행동윤리인 誠慧能勤의 확충과 보편적 행동윤리인 智禮義仁의 완성이 필요하다.

4. 天下에 處하여 살아가는 人間의 궁극적 목표는 보편적 행동윤리인 智禮義仁의 완성에 있다.

5. 意心身力을 誠正修齊하는 것은 個別的·當爲의 행동윤리인 誠慧能勤의 발전적 개념이며, 我가 天下에 處하여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필수적 개인 윤리이고, 大衆의 道德의 教化, 社會活動, 國家統

味安樂
 122) 『格致彙·儒略 大風箴』 3-8 大風之聽 言之難也 大衆之視 許之難也 大方之嗅 遊之難也 大土之味 費之難也

治 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요소이다.

IV. 參考文獻

1. 조황성, 고병희, 송일병. 李濟馬의 格致藁中 儒略에 관한 考察. 사상학회지. 1991;3(1):35-66.
2. 조황성, 고병희, 송일병. 李濟馬의 格致藁中 儒略에 관한 考察(天勢 天時를 중심으로). 사상의학회지. 1992;4(1):31-51.
3. 이제마 지음. 박대식 옮김. 格致藁解題. 청계출판사, 서울, 2000.
4. 李濟馬 原著. 池圭鎔 譯解. 東武格致藁譯解. 영림사, 서울, 2001.
5. 이제마. 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간행, 서울, 2000.
6. 한국헤겔학회 지음. 헤겔연구5. 청아출판사, 서울, 1994.

K C I